

아산 맹씨행단 (牙山 孟氏杏壇)

- 지정번호 : 사적 제109호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중리 300번지
- 시 대 : 조선시대 전기

조선 초기의 명신이자 청백리로 유명한 맹사성(孟思誠, 1360 1438)이 살았던 집으로 우리나라 민가(民家)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내에는 고택(古宅)과 가묘(家廟)인 세덕사(世德祠), 구괴정(九槐亭), 600년 된 은행나무 등이 있다. '행단(杏壇)'이란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서 가르쳤다는 고사를 따라 공자처럼 은행나무 아래서 학문을 하고자하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고택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H자형 맞배집으로 건축면적 93㎡이며, 지붕 위의 공포(栱包)는 단익공(單翼工)에 주심첨차(柱心檐遮)가 조선 초기 양식을 띠고 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앞에 행랑채와 은행나무 있는 곳에 사랑채가 있었고 지금의 건물도 좌측이 세 칸 우측이 한 칸 더 튀어나와 있어 지금과 같은 완전한 H자 형태는 아니었다.

가묘인 세덕사는 정면 3칸 · 측면 2칸의 맞배집으로 맹사성의 조부 맹유와 부친 맹희도, 그리고 맹사성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구괴정은 고택의 후원에 있는 정자 건물로, 맹사성이 황희(黃喜), 허주(許周)와 더불어 후원에 괴목(槐木) 9주를 심어 '구괴정'이라 부르고, 그 터를 삼상평(三相坪)이라 불렀다는 데서 유래한다. 또 이들과 더불어 집 마당가에 단(壇)을 만들어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 현재 마당가에 서 있는 은행나무가 바로 그 나무라고 한다.

아산 맹씨행단의 고택은 지어진 지 700여 년으로 우리나라 건축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민가건축 양식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제공 : 충남역사박물관)

